

한국 대학생 진로탐색장애검사(KCBI)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김 은 영[†]

천안대학교

본 연구는 한국 대학생 진로탐색장애검사(KCBI)를 개발하고, 이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1에서는 문헌고찰과 자기보고식 경험자료를 바탕으로 구성요인이 9개인 45 문항의 최종 한국 대학생 진로탐색장애검사를 개발하였고, 연구 2에서는 개발된 척도에 대한 타당화를 검증하였다. 최종적으로 개발된 진로탐색장애검사를 요인별로 살펴보면 요인 1은 대인관계 어려움(5문항), 요인 2는 자기 명확성 부족(7문항), 요인 3은 경제적 어려움(5문항), 요인 4는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5문항), 요인 5는 직업정보 부족(5문항), 요인 6은 나이 문제(4문항), 요인 7은 신체적 열등감(4문항), 요인 8은 흥미부족(4문항), 요인 9는 미래 불안(6문항)으로 명명하였다. 또한 척도개발 연구를 거쳐 얻어진 최종 한국 대학생 진로탐색장애검사는 준거관련 타당도와 공준 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요어 : 진로탐색장애검사, 진로장애

진로와 관련된 문제는 대학생들이 당면한 가장 심각한 걱정거리중 하나이다. 개인 상담을 신청하는 내담자들 중 진로 적성의 문제를 호소하는 경우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진로 문제는 입학 후 예상되는 중요한 걱정거리로 보고되고 있다(광운대, 2000; 서울대, 1999; 연대, 1998;

김은영은 천안대학교에 근무하고 있음.

[†] 교신저자 : 김 은 영, (136-152) 서울시 성북구 석관2동 332-582,
전화 : 02-964-8803 E-mail : kim6711@chollian.net

이화여대, 2000). 따라서 대학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이끌어가도록, 적합한 진로를 찾고 이에 맞는 진로 계획을 세우거나 성취해가도록 돕는 진로상담은 개인내적인 문제들에 관한 상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상담가들은 대체로 진로와 관련된 문제보다는 개인내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것에 대한 선호를 보여주고 있으나(Spengler, Blustein, & Strohmer, 1990) 직업적인 것과 관련하여서도 심리내적인 건강 문제들이 제기된다는 점에서 이 두 부분은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고, 급변하는 직업환경 속에서 진로상담에 대한 필요성은 점차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다(Carney, Savitz, Weiskott, 1979; Fitzgerald & Osipow, 1988; Manuso, 1983). 특히 개개인의 진로 발달을 어렵게 하는 다양한 장애 요인들을 극복하도록 돕는 진로 상담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앞두고 있는 예비 직장인인 대학생들에게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대학생들에게 적절한 진로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담자가 자신의 진로 발달적 측면에서나 진로 계획을 수행하는데 있어 문제나 어려움으로 지각하고 있는 장애 요인은 어떤 요인인지, 또 그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정보 획득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시말해 진로 상담가는 내담자가 경험하는 진로에서의 장애 요인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내담자가 적절한 방식으로 이 장애들에 반응하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아직 국내에서는 진로 미결정과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는 시도는 있어왔지만(이은아, 1999; 김봉환, 1997, 홍혜경, 1998) 진로 미결정 뿐만 아니라 개인이 지각하는 다양한 진로 장애의 영역을 분류하고 수량적으로 평가하려는 시도는 여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최근 연구(손은령, 2001)외에는 찾아보기 힘들다.

한편 외국에서는 Swanson과 Tokar(1991a)가 진로

관련 장애의 영역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자 진로 장애척도(CBI)를 개발, 발전시켜왔으나 각 문화권에 따라서 지각하는 진로발달에서의 장애 유형과 정도는 다를 것이기 때문에 서구 문화에서 개발된 척도를 번역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우리 실정에 맞는 척도를 제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우리 문화권에서 사용될 수 있고, 우리 대학생들의 진로 발달을 어렵게 하는 진로 장애 요인을 객관적, 다차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신뢰로운 한국형 진로탐색장애검사(KCBI)를 개발하고자 한다. 본 검사의 개발은 진로와 관련해서 다양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학생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자신의 진로발달에서의 장애요인을 다루어 나가도록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또한 장애 요인에 따라 차별화된 다양한 상담전략과 프로그램도 발달시켜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진로장애의 개념(Career barrier)

지난 20여년에 걸쳐, 상담 연구자들은 여성의 진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독특한 요인들의 존재를 인정해왔다(Betz & Fitzgerald, 1987; Fitzgerald & Crites, 1980). 이런 요인들 중 하나는 여성이 진로를 선택하고 수행하는데 있어 장애(barrier)를 경험한다는 것이다. 장애(barrier)에 대한 초기 연구자들은 이런 장애들을 여성의 능력과 성취간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나 혹은 여성의 진로 지향 여제를 설명하기 위한 구성요소로 가정해왔다(Betz & Fitzgerald, 1987). 이와같은 장애에 대한 논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 심리학에서 중요하게 시작되었지만(Farmer, 1976; Fitzgerald & Crites, 1980; Matthews & Tiedeman, 1964; O'Leary,

1974; Zytowski, 1969) 최근의 경험적인 연구들에서는 장애 구성개념의 적용 가능성을 여성뿐 아니라 다른 대상들에게도 확장했다(Lucas & Epperson, 1990; Swanson & Tokar, 1991a). 그리고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진로목표 달성을 위해 많은 장애를 지각하고 있다는 최근 연구들(Luzzo, 1993a, 1995; McWhirter, 1997; McWhirter & Luzzo, 1996; Swanson & Daniels, 1994; Swanson et al., 1996; Swanson & Tokar, 1991a, 1991b)의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개인의 진로 발달 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 진로장애(career barrier)라는 구성개념은 타당하고 유용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기존 연구들에서 장애의 구성요인이 진로 선택 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 유용하다는 것이 제시되어 왔지만 사람들이 지각하는 잠재적인 장애의 영역이 일치하지 않은 점과 진로장애(career barrier) 개념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구체적이고 명료한 정의를 얻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의 Bandura(1982)의 사회 인지 이론을 적용한 Lent, Brown과 Hackett (1994)의 모델은 진로 관련 장애를 이해하는데 있어 기존의 한계를 극복한 유용한 이론적 틀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새로운 많은 관심을 받고있다(Albert & Luzzo, 1999; Lent, Brown, & Hackett, 2000; McWhirter, Torres, & Rasheed, 1998; Swanson et al., 1996; Swanson & Woitke, 1997). Swanson과 Woitke(1997)는 이러한 이론적 틀 속에서 진로장애(career barrier)를 “개인의 진로 발달을 어렵게 만드는 개인 내적이거나 환경적인 사건이나 조건들”로 정의했고 이 정의는 장애가 진로 발달을 방해하는 개인 내적(자기-개념)이고 환경적인(작업장 차별) 요인 둘 다인 것을 나타내고 있다(Crites, 1969).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부분에서는 진로장애에 대한 이론적

인 고려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검증을 통해 한국 대학생 진로탐색장애검사를 제작하고자 하였다. 우선 개방형 질문으로 진로장애에 대한 실제적인 반응내용을 수집하는 질적인 연구방법과 이런 방법상의 주관성을 극복하고 대학생이 지각하는 진로장애를 객관적, 수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포괄적인 척도를 제작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첫 번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준거관련(예측) 타당도 뿐만 아니라, 본 검사와 관련이 있는 타 척도들과의 공준타당도도 검증하고자 하였다.

방 법

조사대상

먼저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실제로 자신의 진로 발달 측면에서 어려움(문제)이나 장애로 지각하는 유목들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개방식 질문지를 통한 자기 보고식 경험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과 경기 지역의 남녀 대학생 101명을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하였다. 내용분석 후 선정된 170개 문항에 대한 기초 조사에서는 서울과 경기 지역의 남녀 대학생 2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그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를 제외한 236명의 자료를 기초 문항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문항분석 과정을 통해 구성된 95문항의 진로탐색장애검사의 구성개념을 살펴보기 위해,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등 지역적인 차이를 고려하여 13개의 대학교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이중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많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하였다고 판단되는 사례는 분석에서 제외시키고 남녀 대학생 1427명의 자료를 사

용하였다.

교차타당화 및 타당화 연구에는 탐색적 요인분석에 포함되지 않은 남녀 대학생 800명의 상관행렬 자료가 이용되었다.

연구절차

우선 자유응답 형식의 자기보고식 경험 자료를 얻기 위해 교양 심리학 강의 시간에 “당신이 과거에 경험한 어떤 어려움(문제)이나 장애가 당신의 진로 발달과 관련되었는가?”(과거), “당신이 자신의 진로 계획이나 목표를 완전히 성취하기 위해 앞으로 극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어려움(문제)이나 장애는 어떤 것인가?”(미래)라는 두 가지의 질문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 자유응답 내용을 유목 분류화 하기 위해 먼저 연구자가 선행 문헌들을 참고하여 검토한 후, 응답 내용상 서로 구분이 될 만한 것은 적은 수의 응답 내용이라도 독립된 유목으로 세분하여 최종 20개 유목을 선정하였다.

유목 분류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두 명의 훈련받은 박사학위과정 학생들이 평정자로 참여하여 1차 분류, 2차 분류를 통해 평정자간 분류 결과가 일치하지 않은 사례의 경우, 충분한 토의를 거쳐 서로가 완전히 합의하는 유목으로 재분류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한 내용분석(김은영, 2000) 결과 ‘자신감 부족’, ‘적성·흥미의 부족’, ‘재정적 어려움’,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사회인식’, ‘정보부족’, ‘나이’, ‘미래에 대한 불안’, ‘건강문제’, ‘대인관계의 어려움’, ‘의사결정의 어려움’ 등의 유목들이 우리 대학생들이 많이 응답한 진로 장애 요인으로 나타났고, 외국의 선행연구에서 많이 나타난 성차별 유목은 응답률이 낮았다.

문항 제작은 학생들이 자유응답시 사용한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다양한 진로 장애 영역들을 포함하도록 각 하위 유목마다 4-12문항씩 총 155개 문항을 만들었다. 이 문항들에 대해 5인의 전문가(박사 1인, 박사과정 4인)들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거쳐 총 170개의 문항으로 재구성하여 남녀 대학생들에게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각 문항에 대해 문항분석을 하였다.

문항분석 후 추출된 95문항의 예비 진로탐색장애검사를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기 위해 교양 심리학 강의시간에 집단적으로 실시하였다. 이 질문지의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10분 정도였다. 확인적 요인분석(교차타당화) 및 타당화 연구를 위해서, 45문항의 최종 진로탐색장애검사와 다른 관련 검사들을 수업시간 중에 집단적으로 실시하였고 이 질문지의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25분 정도였다.

측정도구

진로탐색장애검사의 타당화를 검증하기 위해 그 관련성이 예측된 진로 내외통제성 척도(Trice, Haire & Elliott, 1989), 특성불안검사(Spielberger, Gorsuch & Lushene, 1970), 진로성숙도 검사(김보환, 1997),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이기학과 이학주, 2000)를 사용하였다.

진로 내외통제성 척도

진로 내외통제성 척도는 Trice 등(1989)이 개발한 진로 내외통제 척도(The Career Locus of Control Scale: 이하 CLCS)를 본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번안된 문항들을 이중국어 사용자에게 역번역을 의뢰하여 동일한 내용을 측정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그 후, 심리학 박사과정 전공자 3인에게 문항 표현의 적절성과 명료성에 대한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고 한국어 번역판은 ‘진로 내의 통제성 척도’로 명명하였다. 각 문항은 그렇다/아니다 로 답하는 18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채점은 문항1, 2, 4, 5, 6, 7, 10, 11, 12, 13, 14, 16, 18번은 그렇다는 응답에, 문항 3, 8, 9, 15, 17번은 아니라는 응답에 답한 점수를 더함으로써 총점을 구하게 된다. 이때 점수는 진로 결정이 자신의 통제 밖에 있다는(통제 불가능) 신념을 나타내는 반응들의 수를 더함으로써 계산되기 때문에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 결정이 통제할 수 없는 과정이라는 신념을 나타낸다.

특성불안검사(STAI-T)

Spielberger의 상태-특성불안 검사(STAI: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pielberger, Gorsuch & Lushene, 1970)를 김정택, 신동균(1978)이 번안하여 표준화시킨 상태-특성불안 검사 중 특성불안척도(Form X-II, A-T)를 사용하였다. 특성불안 척도는 비교적 안정되고 일관성 있는 개인의 긴장, 걱정 의 성향 정도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4점 척도의 20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 결과 Cronbach's α 는 .87로 나타났다.

진로 성숙도 검사

Crites(1978)가 개발한 CMI는 태도척도와 능력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진로 선택 시 개인이 갖는 성향이나 태도 등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는 태도척도만을 사용하였다. 태도 척도는 전체 4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김봉환(1997)이 4점 척도로 수정하여 응답하도록 한 것을 사용하였다.

김현옥(1989)은 240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하위척도별로 보고한 Cronbach's α 를 평균 .62(최저 .46, 최고 .69)로 보고하였다. 사범대학생 293명을 대상으로 예비검사를 실시한 결과는

Cronbach의 α 가 .85, 반분신뢰도 .85, 거트만 반분 계수 .85등으로 검사의 신뢰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김봉환, 1997). 본 연구에서도 Cronbach's α 는 .85로 나타났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측정 도구로는 Taylor와 Betz(1983)가 개발한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이하 CDMSES)의 단축형인 CDMSES-SF(Betz, Klein, & Taylor, 1996)를 이기학과 이학주(2000)가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CDMSES-SF는 자기평가, 직업정보, 목표선택, 미래계획, 문제해결 등 5개 하위 요인의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CDMSES-SF의 신뢰도는 내적 일관성 계수를 사용하였는데, 그 범위는 .73에서 .83까지이며, 전체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94로 나타났다(Betz, et al., 1996). CDMSES-SF의 타당도는 준거-관련 타당도에 의해 산출되었는데 Career Decision Scale(Osipow, 1987)과 5개 하위 요인 및 총점과의 상관은 -.45에서 -.66까지의 범위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도 전체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가 .93으로 높게 나타났다.

결 과

한국 대학생 진로탐색장애검사(KCBI)의 개발

문항 분석

내용분석 후 구성된 초기 170문항 각각에 대해 평균, 표준편차를 살펴보았으며 문항-총점간 상관과 전체 문항간 상관을 고려하여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문항을 제거하였다. 문항 점수의 평균이 극단 값을 갖거나 표준편차가 지나치게 작은 문항을 제거하고 문항-총점간 상관이 .30 미만인

문항, 문항간 상관이 .60이상으로 지나치게 높은 상관을 나타내는 문항을 제거될 문항의 준거로 사용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많은 문항을 제거하고 총 95문항이 산출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

진로탐색장애검사의 구성개념을 알아보기 위해, 95문항의 예비 진로탐색장애검사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검사는 측정변수의 측정 결과에 공통분산 뿐 아니라 문항 특유의 분산과 측정시의 오차가 포함된 고유분산이 상당 정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기대하므로 공통요인분석의 모형(이순목, 1995)을 선택하였다. 공통분산의 초기값은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 다중상관계수)를 사용하였고, 기초구조의 추출을 위해서는 단일 주축분해법을 사용하였다. 통계적인 기준과 해석 가능성 차원에서 의미있는 요인수를 결정하기 위해 요인의 수를 지정하지 않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진로탐색장애검사의 구성요인으로서 적절한 요인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고유치, 누적분산비율, 스크리 검사 그리고 해석가능성의 기준을 사용하였다. 구성요인의 수를 9개로 취하는 경우와 10개로 취하는 경우가 모두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두 경우를 모두 살펴보았다. 구성요인의 수를 9개, 10개로 지정해서 비교해본 결과 각 요인에 속하는 문항에서 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다만 10요인의 경우, 나이와 관련한 장애 요인이 독립된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선행 연구와 내용분석에서 잠정적으로 고려한 요인에 나이와 관련된 장애 요인도 포함되므로, 진로탐색장애검사의 구성요인 수를 10개로 결정하였다.

요인의 수를 10개로 지정하고 요인구조를 산출하기 위해 사전도해(preplot)를 살펴본 결과 구성요인간에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 사각회전

(hkp=0.5)을 시행하였다. 각 구성개념을 잘 설명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항을 선정하기 위해, 요인 부하량이 .5를 초과하면서 다른 요인과는 이중으로 부하량이 겹치지 않는 문항을 추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또한 문항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판단하여 요인 내에서 보다 일치된 내용을 측정하는 문항을 선정하였고 해석이 어려운 문항은 제외시켰다. 이러한 요인별 문항선정 과정을 거쳐서 요인 1은 5문항, 요인 2는 5문항, 요인 3은 5문항, 요인 4는 5문항, 요인 5는 4문항, 요인 6은 5문항, 요인 7은 5문항, 요인 8은 4문항, 요인 9는 4문항, 요인 10은 3문항으로 총 45문항이 진로탐색장애검사의 문항으로 선정되었다. 예비문항 중 45개의 문항만으로 구성된 수정된 진로탐색장애검사를 가지고 다시 요인구조를 산출해 보았다. 우선, 요인 수를 10개와 9개로 각각 지정하여 다시 요인구조를 산출하였다.

초기 탐색적 요인분석과 마찬가지로 단일 주축분해와 사각회전을 이용하였다. 45개의 축소된 문항으로 요인분석을 한 결과, 요인 개수가 10개인 경우보다는 9개인 경우가 더 타당하다고 판단되었다. 표 1은 수정된 진로탐색장애검사의 전체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이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통해 최종 9요인을 선정한 후, 이들의 문항-요인 총집간 상관과 내적일치도(Cronbach's α)를 고려하였는데, 선정된 문항들 모두 내적 일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표 2에 제시된 문항들은 진로탐색장애검사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최종적으로 선택된 문항들이다.

표 2를 참고로 진로탐색장애검사 각 요인의 이름을 붙이면, 요인1은 대인관계 어려움(신뢰도 0.81), 요인 2는 자기명확성 부족(신뢰도 0.79), 요인3은 경제적 어려움(신뢰도 0.76), 요인 4는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신뢰도 0.78), 요인 5는 직업정

표 1. 수정된 진로탐색장애검사에 대한 전체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요인7	요인 8	요인 9
B3	0.77988	0.34265	0.12483	0.20943	0.22111	0.23891	0.27049	0.22991	0.19813
B4	0.69950	0.28166	0.13452	0.21859	0.11016	0.17996	0.21477	0.14946	0.13204
B1	0.65439	0.28023	0.12452	0.17119	0.12677	0.07269	0.17171	0.12714	0.21076
B5	0.60828	0.26178	0.08629	0.15166	0.21146	0.10693	0.13648	0.14086	0.04107
B2	0.58830	0.46657	0.10994	0.23727	0.23694	0.19490	0.25768	0.18429	0.25698
A3	0.30979	0.73770	0.12049	0.23812	0.31247	0.11159	0.16127	0.20061	0.17903
A1	0.30353	0.63452	0.09485	0.21897	0.29197	0.09289	0.10692	0.19616	0.18552
A2	0.36091	0.65542	0.06948	0.16507	0.33010	0.12395	0.20056	0.13759	0.18435
A5	0.21426	0.53761	0.12351	0.21215	0.23552	0.15615	0.20472	0.21379	0.19995
A4	0.31620	0.58445	0.13178	0.30228	0.33641	0.16987	0.20927	0.18300	0.21943
K1	0.20958	0.43846	0.17035	0.15991	0.32930	0.18119	0.22633	0.11345	0.30101
K3	0.22121	0.33138	0.21279	0.23710	0.25261	0.28836	0.15939	0.20962	0.21284
H5	0.08621	0.08652	0.72209	0.17773	0.19505	0.19470	0.16368	0.08260	0.21333
H2	0.19547	0.13422	0.68775	0.26361	0.16520	0.29026	0.18384	0.23362	0.15193
H1	0.21974	0.15597	0.66039	0.29369	0.19675	0.31142	0.24157	0.25569	0.25356
H3	0.01353	0.13108	0.56707	0.10904	0.16704	0.11304	0.07368	0.03317	0.26996
H4	-0.02846	0.15627	0.47592	0.13985	0.17689	0.14423	0.09639	0.15179	0.28456
C5	0.19256	0.20514	0.25155	0.69796	0.18767	0.16934	0.14022	0.25421	0.16903
C4	0.18942	0.18483	0.33048	0.66654	0.14486	0.23394	0.22600	0.28565	0.16501
C1	0.15637	0.21261	0.04252	0.58202	0.12007	0.13926	0.16133	0.21012	0.14131
C2	0.16846	0.28988	0.11115	0.60661	0.23163	0.11862	0.15323	0.20777	0.25044
C3	0.21866	0.21536	0.22223	0.60774	0.23636	0.20605	0.19860	0.24041	0.21776
D2	0.12335	0.31628	0.13386	0.15304	0.71376	0.05803	0.12916	0.18157	0.23264
D1	0.15339	0.27451	0.10736	0.15092	0.61918	0.01692	0.05582	0.22719	0.21158
D5	0.22457	0.24726	0.26365	0.17338	0.59030	0.12553	0.14187	0.14225	0.23747
D4	0.16308	0.34057	0.21225	0.18412	0.58156	0.10825	0.11637	0.09879	0.26548
D3	0.16141	0.40277	0.25005	0.34583	0.59303	0.17948	0.17496	0.41247	0.38109

표 1 계속. 수정된 진로탐색장애검사에 대한 전체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요인7	요인8	요인9
J3	0.11336	0.09785	0.25120	0.16984	0.07340	0.68735	0.19059	0.18855	0.22275
J2	0.16482	0.08821	0.22294	0.17878	0.13927	0.68380	0.30304	0.26564	0.12628
J4	0.18250	0.23800	0.25162	0.19149	0.06732	0.67068	0.23431	0.19474	0.16717
J1	0.15625	0.06027	0.11723	0.14285	0.03874	0.60690	0.22325	0.21433	0.14369
I1	0.20391	0.09461	0.13385	0.20215	0.12581	0.23421	0.73534	0.19737	0.12084
I2	0.19896	0.23699	0.18766	0.20097	0.13395	0.28193	0.70974	0.21180	0.21626
I3	0.24391	0.26758	0.18040	0.12187	0.13933	0.21364	0.66203	0.18755	0.16088
I4	0.25554	0.07679	0.17395	0.22664	0.09613	0.31773	0.47820	0.24128	0.10433
E1	0.16079	0.19952	0.14733	0.24605	0.18676	0.20121	0.18088	0.72727	0.23398
E2	0.21230	0.18981	0.14776	0.28487	0.20981	0.29481	0.25192	0.73734	0.24473
E4	0.06076	0.22451	0.15142	0.27127	0.28037	0.11948	0.16588	0.46649	0.22891
E3	0.21225	0.20372	0.19158	0.24603	0.34634	0.23943	0.18573	0.45169	0.15138
F4	0.15841	0.16063	0.25707	0.16813	0.22246	0.17103	0.12442	0.20136	0.67205
F2	0.13297	0.17194	0.19051	0.16878	0.24145	0.15548	0.16890	0.21659	0.64480
F3	0.18563	0.22275	0.19086	0.31054	0.29454	0.27202	0.20368	0.38114	0.49862
F1	0.17072	0.30000	0.13648	0.19472	0.27496	0.14568	0.16391	0.24317	0.45624
F5	0.20880	0.43436	0.23010	0.29468	0.41293	0.23259	0.19288	0.25891	0.50028
K2	0.31811	0.33868	0.24085	0.25125	0.26320	0.38630	0.26965	0.31113	0.40921
고유치	10.1086	2.1545	1.7843	1.2452	1.1147	0.8444	0.7993	0.7107	0.5807
설명분산	0.5620	0.1198	0.0992	0.0692	0.0620	0.0469	0.0444	0.0395	0.0323
누적분산	0.5620	0.6818	0.7810	0.8502	0.9122	0.9591	1.0036	1.0431	1.0754

보 부족(신뢰도 0.78), 요인 6은 나이 문제(신뢰도 0.77), 요인 7은 신체적 열등감(신뢰도 0.75), 요인 8은 흥미 부족(신뢰도 0.71), 요인 9는 미래 불안(신뢰도 0.76)으로 명명할 수 있다.

교차타당화

진로탐색장애검사 개발과정에서 탐색적 요인분

석 결과로 얻은 모형이 표본에 종속된 모형인지 아니면 다른 표본에도 일반화 될 수 있는 모형인지 검증하기 위해 교차타당화를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LISREL 8.12판을 이용한 측정변수간의 다변량 정규분포를 가정하지 않는 ULS(Unweighted Least Square)법을 사용하였다.

진로탐색장애검사의 9개의 요인구조 모형을 검

표 2. 수정된 진로탐색장애검사의 요인별 문항

요 인	문 항	내 용
요인 1	B3	나는 인간관계가 좁은 편이기 때문에 직장생활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B4	나는 직장생활에서 일과 관련된 어려움보다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더 클 것이다.
	B1	나는 앞으로 직장생활을 할 때 동료들과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B5	나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기 때문에 직장생활이 쉬울 것이다.
	B2	나는 무슨 일을 하려면 몹시 긴장하기 때문에 직장생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요인 2	A3
A1		나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어렵다.
A2		나는 일하는데 필요한 주장성이 부족하다.
A5		나는 무엇인가를 결정 내리고 난 후 그 결정에 대해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A4		나는 어려운 일이 닥치면 피하고 싶다.
K1		나는 내가 원하는 직업에서 필요한 기술들을 습득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K3		나는 좋지 않은 성적 때문에 취업하기 어려울 것이다.
요인 3	H5	내가 원하는 진로와 목표의 성취를 위해 필요한 경제적인 지원이 부족하다.
	H2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돈이 없기 때문이다.
	H1	경제적 문제로 인해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다.
	H3	돈을 빨리, 많이 벌어서 가정 형편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H4	나는 앞으로의 진로 선택에 있어서 경제적인 문제의 해결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요인 4	C5	앞으로 나의 진로는 부모님의 반대나 간섭으로 인해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
	C4	나는 부모님이나 집안의 기대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할 것이다.
	C1	부모님이 반대하시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도 직업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C2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진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진로를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C3	나는 부모님이나 이성친구가 나의 진로선택을 좋아하지 않을까 봐 걱정된다.
요인 5	D2	나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는지 잘 모르겠다.
	D1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들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
	D5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나 교육등에 대한 자료 얻기가 어렵다.
	D4	나는 여러 가지 직업분야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D3	내가 잘 할수 있는 직업분야가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겠다.

표 2 계속. 수정된 진로탐색장애검사의 요인별 문항

요 인	문	항	내	용
요인 6	J3	나는 나이 때문에 진로에 대한 결정을 빨리 내려야 한다.		
	J2	나는 나이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할 시기를 놓쳤다고 생각한다.		
	J4	나는 나이 때문에 진로에 있어서 남들에게 뒤쳐질까봐 걱정이 된다.		
	J1	나는 나이 때문에 진로를 계획하고 행동으로 옮기는데 있어 지장을 받을 것이다.		
요인 7	I1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에는 나의 신체적 조건이 나쁘다.		
	I2	신체적인 열등감이 나의 직업선택이나 계획에 영향을 준다.		
	I3	나는 신체적인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		
	I4	나는 건강 때문에 직업선택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요인 8	E1	앞으로 내가 선택한 직업에 종사할 때, 그 일에 흥미가 점점 없어질 것 같다.		
	E2	앞으로 내가 선택한 직업에 종사할 때, 그 일이 점차 지루해 질 것이다.		
	E4	내가 지금 흥미를 갖고 있는 일은 시간이 흐르면 바뀔 것이다.		
	E3	나는 흥미 있는 일이나 선택하고 싶은 직업이 많다.		
요인 9	F4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때문에 나의 취업은 영향을 많이 받는다.		
	F2	경기 불황으로 인해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나의 취업에 영향을 준다.		
	F3	시대 흐름의 변화가 나의 진로에 대한 선택과 계획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F1	나는 앞으로 내가 원하는 진로를 갖지 못할까봐 불안하다.		
	F5	나는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막연한 불안함이 있다.		
	F2	나는 취업이 잘 안될 것이다.		

표 3. 교차타당화에 사용된 수정된 진로탐색장애검사의 검증 모형에 대한 부합도 지수

모형	χ^2	자유도	GFI	AGFI	NFI	RMR	RMSEA
검증모형	39641.662	990	0.965	0.960	0.949	0.0496	0.0394

증하는데 자료가 되는 전반적인 부합지수들이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ULS법에 의한 계산방식에서의 카이제곱치는 의미있는 지수가 아니므로 검증의 지표로 삼지 않았다. 다변량 정규분포 가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 기초부합치(GFI), 조정부합치(AGFI), 표준부합치(NFI), 원소간 평균차이(RMR)와 최근의 연구들(홍세희, 2000)에서 유용성을 인정

받은 개략화 오차평균(RMSEA)을 모형검증을 위한 해석에 사용하여 모형이 경험적 자료에 잘 맞는 지 검토하였다. 전반적인 부합지수들은 보통 모형을 수용할 만한 부합지수의 기준으로 제시되는 .90을 넘는 수치를 보였고 RMR과 RMSEA는 좋은 적합도 지수로 제시되는 .05 이하(이순목, 2000)를 나타냈다.

세부적인 지수인 표준화된 요인부하량과 다중 상관관계는 높은 값을 보이고 t값도 모두 .05수준에서 유의미하다. 요컨대 전반적인 부합지수와 세부적인 부합지수는 수정된 진로탐색장애검사의 9요인 구조가 일반화될 수 있는 모형을 확인시켜주었다.

한국 대학생 진로탐색장애검사(KCBI)의 타당화 검증

최종 진로탐색장애검사의 준거관련(예측) 타당도 분석

최종적으로 구성된 진로탐색장애검사가 실제 진로발달 수준을 설명해주고, 진로발달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변별해준다면 이 척도의 예측력 또한 검증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성숙도 검사를 실시하여 진로발달수준을 측정하였다.

회귀분석: 먼저, 최종 진로탐색장애검사가 대학생의 진로발달 수준을 얼마나 설명해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진로발달수준을 반영하는 진로성숙도 검사를 역으로 채점한 진로미성숙 정도에 대해 진로탐색장애검사의 총점으로 단순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4는 진로 미성숙에 대한 최종 진로탐색장애검사의 단순회귀분석 결과인 표준회귀계수(β)와 R^2 , 수정된 R^2 , R을 제시한 것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최종 진로 미성숙을 얼마나 설명해주는지 알려주는 R^2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F_{1, 798}=446.768, p<.001$), 진로미성숙 정도를 36% 설명해준다. 따라서 척도개발과 타당화 과정을 통해 검증된 9요인 모형의 한국 대학생 진로탐색장애검사는 실제 진로발달 수준을 반영하는 진로 미성숙정도를 유의미하게 예측해준다고 해석 할 수 있다.

부가적으로 최종 진로탐색장애검사의 각 하위 요인들이 진로 미성숙 정도를 각각 얼마나 설명해주는지 알기 위해 표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진로탐색장애검사의 각 요인 중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요인4), 직업정보 부족(요인5), 대인관계의 어려움(요인1), 자기 명확성 부족(요인 2), 신체적 열등감(요인7)과 흥미부족(요인8)이 진로 미성숙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표 5).

변별분석: 진로발달 수준이 높은 집단과 진로발달 수준이 낮은 집단, 두 집단을 최종 대학생 진로탐색장애검사 총점이 유의미하게 변별해주는

표 4. 진로 미성숙에 대한 최종 진로탐색장애검사 전체값의 단순회귀분석 결과

설명변수	진로미성숙	진로탐색장애 검사	β	$F_{1,798}$
진로탐색장애 검사	.599	.000	.599	446.768****
문항수	47	45		
평균	104.9088	95.79		회귀상수=74.657
표준편차	8.4614	16.05		
사례수	800	800		

$R^2 = .359$: $Adj R^2 = .358$: $R = .599$

주. **** $p < .001$

표 5. 진로 미성숙에 대한 최종 진로탐색장애검사의 표준 다중회귀분석

설 명 변 수	β	F
요인1 (대인관계 어려움)	.087	2.659**
요인2 (자기 명확성 부족)	.104	2.810**
요인3 (경제적 어려움)	.050	1.589
요인4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131	4.166***
요인5 (직업정보 부족)	.322	8.271***
요인6 (나이 문제)	.043	1.345
요인7 (신체적 열등감)	.096	2.984**
요인8 (흥미 부족)	.082	2.141*
요인9 (미래 불안)	.023	.601
회귀상수 = 69.415		
$R^2 = .411$: 수정된 $R^2 = .404$: $R = .641$ ***		

주. * $p < .05$, ** $p < .01$, *** $p < .001$

지 알아보기 위해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진로탐색장애검사의 각 요인 중 어떤 요인이 두 집단을 유의미하게 변별해주는지 알아보았다.

두 집단의 분류는 진로성숙도 총점을 기준으로 하여, 상하위 25%에 속하는 사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진로성숙도 총점에서 상위 25%에 속하는 사례(216명)는 진로발달 수준이 높은 집단으로, 하위 25%에 속하는 사례(216명)는 진로발달 수준

이 낮은 집단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모든 사례수는 432명이었다.

먼저 진로탐색장애검사 총점을 예측변수로 하여 판별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하나의 판별함수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이 판별함수의 정준상관계수는 .635이었고, 유의도 검증 결과가 유의미하였다(Wilks's L = .597, $\chi^2 = 221.891$, $df = 1$, $p < .001$). 또한 진로발달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변산성(variability)을 100%설명해 주었다. 그러므로 이 판별함수로 의미있는 해석을 할 수 있다.

이 판별함수에 의해 진로발달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이 최대한 구분되는데, 진로발달 수준이 높은 집단의 집단중심점은 -.821, 진로발달 수준이 낮은 집단의 중심점은 .821로 큰 차이를 나타냈다. 총 432 사례에 대한 분류화(분류 정확률)절차를 사용하였고, 그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분류적중률은 최대 우연기준치인 50%보다 높아, 전체 432명중 81.9%가 정확히 분류되었는데, 진로발달수준이 높은 집단은 81.5%가 예측된 집단으로 분류되었고, 진로발달 수준이 낮은 집단은 82.4%가 예측된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부가적으로 진로탐색장애검사의 9개 요인을 모두 포함하여 단계적 판별분석을 실시하여, 최종 진로탐색장애검사의 요인들이 진로발달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구분하는 상대적인 판

표 6. 예측변수로 최종 진로탐색장애검사 전체값이 사용된 판별분석의 분류화절차 결과

		예측 분류 집단		전체 사례수
		진로발달상위	진로발달하위	
빈도(%)	진로발달상위	176(81.5%)	40(18.5%)	216(100%)
	진로발달하위	38(17.6%)	178(82.4%)	216(100%)

주. 분류정확 빈도(%): 354(81.9%)

표 7. 판별함수와 최종 진로탐색장애검사 각 요인들의 상관분석 결과

예측 변수	함수1 (구조행렬)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요인7	요인8	요인9
요인1	.348	1.000								
요인2*	.616	.467	1.000							
요인3	.309	.138	.198	1.000						
요인4*	.528	.210	.313	.191	1.000					
요인5*	.800	.151	.362	.151	.231	1.000				
요인6	.311	.225	.252	.329	.229	.037	1.000			
요인7*	.431	.283	.234	.333	.261	.051	.360	1.000		
요인8*	.772	.159	.225	.224	.291	.523	.300	.237	1.000	
요인9	.556	.201	.460	.374	.320	.432	.298	.123	.415	1.000

주. * 단계적 판별분석에서 투입된 요인

별력을 알아본 결과 두 집단을 가장 잘 판별하는 예측변수가 직업정보 부족(5요인), 흥미부족(8요인), 자기명확성 부족(2요인), 신체적 열등감(7요인),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4요인)임을 확인하였다(표 7).

최종 진로탐색장애검사의 공준타당도 분석

개발된 진로탐색장애검사의 공준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그 관계성이 가정된 다른 심리적 변인들(불안, 진로 미성숙, 진로 내외통제성,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측정도구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표 8. 진로탐색장애검사와 심리적 변인들간의 상관

변인	불안	진로 미성숙	진로 내외통제성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탐색장애검사	.615***	.599***	.186***	-.441***

주. *** $p < .001$

우선, 진로탐색장애검사와 불안, 진로 미성숙, 진로 내외통제성,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의 상관분석 결과는 표 8과 같다.

진로탐색장애검사와 불안, 그리고 진로탐색장애검사와 진로미성숙을 측정하는 검사들 간에는 .615와 .599의 높은 정적인 상관이 나타났고, 진로탐색장애검사와 진로 내외통제성은 .186의 약한 상관이 나타났다.

그리고 진로탐색장애검사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는 -.441의 높은 부적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 < .001$). 이와 같은 결과는 진로발달 측면에서 장애를 많이 지각할수록 불안하고 진로태도가 미성숙한 경향이 있으며, 진로에서 장애를 적게 지각할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이상과 같은 진로탐색장애검사와 심리적 변인들간의 단순한 관계에 더하여 한국 대학생 진로 장애를 예측할 수 있는 변수를 선정하기 위해 진로탐색장애검사의 총점을 준거 변수로 하

표 9. 대학생 진로장애를 예측하는 변수

준거변수	단계	예측변수	R ² 증가분	R ²	F
진로탐색 장애검사	1	불안	0.379	0.379	486.274***
	2	진로 미성숙	0.133	0.512	417.586***
	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0.013	0.525	293.697***
	4	진로 내외통제성	0.004	0.529	223.203***

주. *** $p < .001$

고, 심리적 변인들을 예측변수로 하는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결과는 표 9와 같다.

결과를 살펴보면 불안, 진로 미성숙,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 내외통제성 네 변인 모두가 대학생 진로장애를 잘 예측하고 있었고 전체 분산의 총 5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불안은 전체 분산의 38%를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로 나타났다. 불안과 진로 미성숙 두 변수를 합하여 진로탐색장애검사의 51%를 설명할 수 있었다. 이같은 결과는 불안이 높고 진로발달이 미성숙할수록 진로장애를 많이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심리내적 변인인 불안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논 의

본 연구는 효과적인 진로상담과 진로지도를 위해, 우리나라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탐색장애검사를 개발하고 타당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진로결정 등의 진로문제는 문화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므로(Cheatham, 1990; Fouad, 1993; Gati et al., 1996) 우리의 실정

에 적합한 측정도구의 개발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검사는 진로를 계획, 결정하고 수행하는 과정의 장애 요인들에 대해 우리 대학생들이 직접 응답한 반응내용에 기초하여, 대규모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신뢰도 및 타당도가 적절할 뿐 아니라, 교차타당화를 통하여 일반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진로발달 측면에서 다양한 진로장애를 지각하는 대학생 내담자들에게 올바른 진로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내담자의 진로 장애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진로탐색장애검사는 내담자의 다양한 진로 장애를 정확히 파악하는 차별적 진단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각 내담자의 특성, 문제의 유형 그리고 상황적 맥락을 고려하여 차별적인 진로상담을 가능하게 하는, 진로상담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될 수 있는 검사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진로탐색장애검사의 구성요인들을 보면 진로와 관련된 장애 요인은 사회인지모델에서 언급된 것처럼, 개인의 심리내적 요인과 맥락적 요인들이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으나 모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련성에서도 볼 수 있

듯이 불안과 진로 미성숙이 진로장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진로와 관련하여 장애를 지각하는 내담자를 돕기 위해서는 내담자의 직업 정보 수집 능력의 향상 뿐 아니라 내담자의 성격적 측면이나 불안, 자신감 부족, 열등감 같은 심리 내적인 측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내담자들이 보다 자신의 직업적 목표와 진로발달에 관련된 현실적인 지각을 갖도록 도와서 객관적으로 실제하는 문제와 지각하고 있는 문제를 구별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진로탐색장애 검사의 결과를 통해 새로운 진로상담 및 개입의 효율성을 평가하는데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검사를 이용하여 실제 상담 현장에서의 활용 뿐 아니라 대학생의 진로발달을 돕기 위한 진로관련 연구들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해본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는 첫째, 연구 대상과 관련된 일반화의 문제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우리나라의 4년제 대학교 학생으로서 무선적으로 대상을 표집한 것이 아니라 편의표집한 표본이다. 물론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지역을 포함하도록 학교를 선정하여 지역적인 특성과 학교의 특성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였으나, 13개 학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모든 대학생들에게 일반화하는 데에는 제한점이 있다. 개인의 진로발달 측면에서 지각하는 장애는 다양한 사회, 심리적 변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가 일반화 될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생 진로탐색장애검사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짐으로써 모든 집단에서 대학생의 진로장애를 상호 비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문항 개발시 연구자의 주관성이 많이 개입된 문제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실제로 기술한 다양한 진로장애 요인들을 기초로 하여, 내용분석 후 본 연구자가 5인의 전문가들(박사 1인, 박사과정 4인)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거쳐 초기 문항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실제 응답 내용의 하위 유목별 분류에 있어서는 두 명의 평정자를 통해 유목 분류의 신뢰성을 검증하였어도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작용하였고, 또한 문항 개발이 다수의 전문가 집단들의 검증을 거치지 못한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셋째, 진로장애와 관련이 있는 변인들의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장애와 관련이 있는 심리적 변인들로 불안, 진로 미성숙, 진로 내외통제성,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가정하였으나 이들간의 구체적인 경로를 살펴보지 못했다. 불안이나 진로 미성숙 같은 변인들이 진로 장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나 진로 내외통제성 같은 변인들을 매개로 하여 진로장애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심리적 변인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진로장애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대학생의 진로와 관련된 장애 요인은 전공이나 나이 같은 개인의 배경적인 요인과 심리적 독립이나 애착, 자기 존중감, 의사결정 능력 등 개인 내적인 요인들, 그리고 학업 성적과 지능 등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이 진로장애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 번안하여 사용한 진로 내외통제성 척도의 타당화 작업이 필요하다. 진로 내외통제성과 진로장애와는 별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것은 진로 내외통제성 척도 자체가 내외 통제를 측정하는 문항들로 양분되어

있기 때문에 진로 내외통제성 척도 전체와 진로 장애와는 상관이 높게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내적 통제 집단과 외적 통제 집단으로 구분하여 이 집단들과 진로장애, 혹은 진로발달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진로탐색장애 검사가 보다 타당한 측정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예언타당도가 높은 도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대학생 뿐 아니라 대학 졸업 후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종단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진로장애를 많이 지각한 대학생들과 진로장애를 적게 지각한 대학생들의 취업까지 걸리는 시간이나 취업 후 직장에서의 만족도, 취업 준비 활동 등을 비교해서 살펴보는 것은 대학생 진로탐색장애검사의 타당도를 높여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양하고 급변하는 현대 사회속에서 지속적인 경력개발과 만족스런 직장생활을 위해 성인 진로탐색장애검사가 개발될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광운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2000). 2000학년도 신입생 실태조사. 학생생활연구, 11, 광운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김봉환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은영 (2000). 진로문제 진단검사 제작을 위한 예비연구: 내용분석. 학생생활연구, 11, 29-45 광운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1999). 서울대학교 신입생 특성조사 보고서.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이기학, 이학주 (2000). 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 정도에 대한 예언변인으로서의 자기-효능감 효과 검증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1), 127-136.
- 이순목 (1995). 요인분석 I. 서울: 학지사.
- 이순목 (2000). 요인분석의 기초. 서울: 교육과학사.
- 이은아 (1999). 역기능적 가족구조와 의사결정 성향이 진로미결정 문제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화여자대학교 학생상담센터 (2000). 학생상담센터 활동보고. 학생생활연구, 34, 이화여자대학교 학생상담센터.
- 연세대학교 학생상담소 (1998). 1998학년도 신입생 실태조사. 연세상담연구, 14, 연세대학교 학생상담소.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홍혜경 (1998). 진로결정상태모형에 의한 대학생의 진로 결정상태의 유형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손은령 (2001). 여자 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Albert, K. A., & Luzzo, D. A. (1999). The role of perceived barriers in career development: A social cognitive perspective.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7, 431-436.
- Bandura, A. (1982). The self and mechanisms of agency. In J. Suls (Ed.),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the self* (pp. 3-39). Hillsdale, NJ: Erlbaum.
- Betz, N. E., & Fitzgerald, L. F. (1987). *The career psychology of women*. Orlando, FL: Academic Press.
- Carney, C. G., Savitz, C. J., & Weiskott, G. H. (1979). Student evaluations of a university

- counseling center and their intentions to use its program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6, 242-249.
- Cheatham, H. E. (1990). Afrocentricity and career development of African Americans. In R. J. Drummond & C. W. Ryan (Eds.), *Career counseling: A development approach*. N.J: Englewood Cliffs.
- Crites, J. O. (1969). *Vocational Psychology*. New York: McGraw-Hill.
- Farmer, H. S. (1976). What inhibits achievement and career motivation in women? *Counseling Psychologist*, 6, 12-14.
- Fitzgerald, L. F., & Crites, J. O. (1980). Toward a career psychology of women: What do we know? What do we need to know?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7, 44-62.
- Fitzgerald, L. F., & Osipow, S. H. (1988). We have seen the future, but is it us? The vocational aspirations of graduate students in counseling psychology.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19, 575-583.
- Fouad, N. A. (1993). Cross-cultural vocational assessment,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2(1), 4-13.
- Gati, I., Krausz, M., & Osipow, S. H. (1996). A taxonomy of difficulties in career decision mak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 510-526.
-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1994).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Monograp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 79-122.
- Lent, R. W., Brown, S. C., & Hackett, G. (2000). Contextual supports and barriers to career choice: A social cognitive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 36-49.
- Lucas, M. S., & Epperson, D. L. (1990). Types of vocational undecidedness: A replication and refine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7, 382-388.
- Luzzo, D. A. (1993a). Ethnic differences in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f barriers to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Development*, 21, 227-236.
- Luzzo, D. A. (1995). Gender differences in college students' career maturity and perceived barriers in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3, 319-322.
- Manuso, J. S. L. (Ed.) (1983). *Occupational clinical psychology*. New York: Praeger.
- Mattews, E., & Tiedeman, D. V. (1964). Attitudes toward career and marriage and the development of lifestyle in young wo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1, 374-383.
- McWhirter, E. H., & Luzzo, D. A. (1996, August). Examining perceived barriers, career interest-aspiration and aspiration-major congruence. *Paper presented at the 104th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Ontario, Canada.
- McWhirter, E. H. (1997). Perceived barriers to education and career: Ethnic and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0, 124-140.
- McWhirter, E. H., Torres, D., & Rasheed, S. (1998). Assessing barriers to women's career adjustment.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6, 449-479.
- O'Leary, V. E. (1974). Some attitudinal barriers to occupational aspirations in women. *Psychological Bulletin*, 81, 809-826.
- Osipow, S. H. (1987). *Manual for the Career Decision*

- Scale.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Spengler, P. M., Blustein, D. L., & Strohmer, D. (1990). Diagnostic and treatment overshadowing of vocational problems by personal problem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7*(4), 372-381.
- Swanson, J. L., & Daniels, K. K.(1994, August). Examining the components of career-related barrier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Los Angeles, CA.*
- Swanson, J. L., Daniels, K. K., & Tokar, D. M. (1996). Measuring perceptions of career-related barriers: The Career Barriers Inventor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 219-244.
- Swanson, J. L., & Tokar, D. M. (1991a).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f barriers to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8*, 92-106.
- Swanson, J. L., & Tokar, D. M. (1991b).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Career Barriers Inventor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9*, 344-361.
- Swanson, J. L., & Woitke, M. B. (1997). Theory into practice in career assessment for women: Assessment and interventions regarding perceived career barrier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5*, 431-450.
- Trice, A. D., Haire, J. R., & Elliott, K. A. (1989). A career locus of control scale for undergraduate students. *Perceptual and Motor Skills, 69*, 555-561
- Zytowski, D. G. (1969). Toward a theory of career development for women.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47*, 660-664.
- 원 고 접 수 일 : 2001. 12. 15
수정원고접수일 : 2002. 2. 20
게 재 결 정 일 : 2002. 2. 28

A Study for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Korean College Students' Career Barrier Inventory

Eun-Young Kim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Korean College Students' Career Barrier Inventory (KCBI) and examine its reliability and validity. In STUDY 1, the KCBI consisting of 45 items of 9 factors were developed based on literatures and self-reported data. The validity of the developed scale was verified in STUDY 2. The final KCBI was developed. It consisted of factor 1 of Relationship Difficulties(5 items), factor 2 of Lack of Self Definiteness(7 items), factor 3 of Financial Difficulties(5 items), factor 4 of Conflict with Significant Others(5 items), factor 5 of Lack of Career Information(5 items), factor 6 of Age Barriers(4 items), factor 7 of Lack of Physical Confidence(4 items), factor 8 of Lack of Interests(4 items), and factor 9 of Feeling of Anxiety About Future(6 items). And the final KCBI obtained through the scale development study was confirmed to have criteria-related validity and concurrent validity.

Key Words : Korean Career Barrier Inventory, career barrier

부 록 I

최종 한국 대학생 진로탐색장애검사

다음은 일반적으로 여러분의 진로발달을 어렵게 하는 '문제(장애)'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이 "문제(장애)"들에 대해 당신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정도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거의 그렇지 않다. ③대체로 그렇다. ④매우 그렇다)

- 1 나는 우유부단해서 무엇인가를 결정하기가 어렵다.
- 2 나는 인간관계가 좁은 편이기 때문에 직장생활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 3 앞으로 나의 진로는 부모님의 반대나 간섭으로 인해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
- 4 나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는지 잘 모르겠다.
- 5 앞으로 내가 선택한 직업에 종사할 때, 그 일이 점차 지루해 질 것이다.
- 6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때문에 나의 취업은 영향을 많이 받는다.
- 7 내가 원하는 진로와 목표의 성취를 위해 필요한 경제적인 지원이 부족하다.
- 8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에는 나의 신체적 조건이 나쁘다.
- 9 나는 나이 때문에 진로에 대한 결정을 빨리 내려야 한다.
- 10 나는 내가 원하는 직업에서 필요한 기술들을 습득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 11 나는 일하는데 필요한 주장성이 부족하다.
- 12 나는 직장생활에서 일과 관련된 어려움보다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더 클 것이다.
- 13 나는 부모님이나 이성친구가 나의 진로선택을 좋아하지 않을까 봐 걱정된다.
- 14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들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R)
- 15 앞으로 내가 선택한 직업에 종사할 때, 그 일에 흥미가 점점 없어질 것 같다.
- 16 나는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막연한 불안함이 있다.
- 17 돈을 빨리, 많이 벌어서 가정 형편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 18 나는 건강 때문에 직업 선택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 19 나는 나이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할 시기를 놓쳤다고 생각한다.
- 20 나는 좋지 않은 성적 때문에 취업하기 어려울 것이다.
- 21 나는 무엇인가를 결정 내리고 난 후 그 결정에 대해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 22 나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기 때문에 직장생활이 쉬울 것이다.(R)
- 23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진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진로를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 24 나는 여러 가지 직업 분야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 25 나는 흥미 있는 일이나 선택하고 싶은 직업이 없다.
- 26 나는 앞으로 내가 원하는 진로를 갖지 못할까봐 불안하다.
- 27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돈이 없기 때문이다.
- 28 신체적인 열등감이 나의 직업 선택이나 계획에 영향을 준다.
- 29 나는 나이 때문에 진로에 있어서 남들에게 뒤쳐질까봐 걱정이 된다.
- 30 나는 취업이 잘 안될 것이다.
- 31 나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어렵다.
- 32 나는 앞으로 직장생활을 할 때 동료들과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 33 나는 부모님이나 집안의 기대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할 것이다.
- 34 내가 잘 할 수 있는 직업분야가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겠다.
- 35 내가 지금 흥미를 갖고 있는 일은 시간이 흐르면 바뀔 것이다.
- 36 경기 불황으로 인해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나의 취업에 영향을 준다.
- 37 경제적 문제로 인해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다.
- 38 나는 신체적인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
- 39 나는 나이 때문에 진로를 계획하고 행동으로 옮기는데 있어 지장을 받을 것이다.
- 40 나는 어려운 일이 닥치면 피하고 싶다.
- 41 나는 무슨 일을 하려면 몹시 긴장하기 때문에 직장생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 42 부모님이 반대하시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도 직업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 43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나 교육 등에 대한 자료가 얻기가 어렵다.
- 44 시대 흐름의 변화가 나의 진로에 대한 선택과 계획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 45 나는 앞으로의 진로 선택에 있어서 경제적인 문제의 해결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 (R) 역문항

부 록 II

진로 내외통제성 척도

다음은 여러분의 진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T, 아니다 F).

번호	문 항	T: 그렇다	F: 아니다
1	좋은 직업을 구하려면 근본적으로 적당한 때에 출을 잘 서야 한다.	T	F
2	나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직업을 찾기 시작한지 1달 안에 신입 사원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T	F
3	취업하는데는 대학 성적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T	F
4	첫 취업에는 나의 사회적/인척/학연 관계가 직접적인 요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T	F
5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성적, 자격증 등)에 따라 첫 취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T	F
6	내가 취업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의 여부는 면접관들이 내게 가지는 인상에 주로 근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면접관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지에 대처하기 위해서 미리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T	F
7	졸업 후에 학교 취업지원실에서 나에게 좋은 직업을 찾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T	F
8	졸업 직후에 나의 취업 목표와 관련이 없는 월급이 많은 일자리보다는, 월급이 적더라도 나의 경력(진로)에 도움이 될 일을 택하겠다.	T	F
9	내가 준비하고 노력해온 기술을 바탕으로, 졸업 후 첫 취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T	F
10	어느 날 우연히 나에게 꼭 맞는 직업을 가지게 될 것이다.	T	F
11	나는 내게 걸맞는 직업이 틀림없이 내 앞길에 나타날 것이라고 믿는다	T	F
12	취업하거나 경력을 쌓는 일에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너무 많은 요인들이 관여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해 걱정해 봤자 소용없다.	T	F
13	최근에는 취업하는 것에 대해 대학에서 필요이상으로 강조한다.	T	F
14	직업 선택에 대한 걱정을 시작하는 시기는 대학 4학년이다.	T	F
15	나는 내 직업에 매우 전념하고, 여기서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바를 할 것이다.	T	F
16	내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에게 알맞은 직업을 '운 좋게' 구했다.	T	F
17	졸업 5년 후에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다.	T	F
18	나는 학교를 마친 이후의 직업과 삶에 대해 생각하기가 싫다.	T	F